

군산, 겨울철 재난 대책 보고회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강화 등 추진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시가 겨울철 재난에 의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겨울철 재난에 집중대응을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27~28일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과 대설·한파대비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27일에는 군산시 및 군산경찰서, 자율방재단 합동으로 성산면 고봉제 일원에서 폭설로 인한 차량통행 불통 및 고립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폭설 대응 교통소통 대책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40여명, 제설차량, 지원차량, 제설삽·넙가래 등 5종의 제설장비·자재가 동원됐으며, 훈련은 기습적인 폭설로 성산면 고봉제에 20cm 이상의 눈이 내려 트레일러 전복으로 차량 고립을 초래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또 28일에는 시청 5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운동목 부시장 주재로 재난협업 관련부서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한 다양하고 참신한 대응방안을 논의 했다.

부서별로 재난별 대응계획을 사전 점검하고 협업부서별 정보를 공유하여 발견된 위험요소 중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조치 하고, 추가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 다.

대설 대비 주요 대책으로는 ▲ 재난영상정보(CCTV) 활용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 재난에·경보방송, 전광판, 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시스템 운영 활성화 ▲ 신속한 제설·제빙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도로 제설 대책 수립 ▲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강화 ▲ 노후주택 등 적설취약 구조물 일제조사 실시 및 담당책임자 복수 지정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한파 대비 주요 대책으로는 ▲ 경로당 등 한파쉼터 운영 ▲ 한파 대비 양식장 점검 및 보강 실시 ▲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난방 취약가구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 버스승강장 운영의자 등 한파저감 시설 확대 설치 ▲ 보건소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 수도시설 동파예방 대책 등을 추진한다.

운동목 부시장은 관련 업무 부서장에게 "철저한 사전 대비와 준비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나운동 일원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가압장 부지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방된다.

군산 가압장 시민 휴식공원으로 개방

2007년 가동 중단 방치... 11월말 완공 목표로 작업 순조

군산시 나운동 일원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가압장 부지가 시민의 휴식공원으로 개방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군산가압장은 금강광역상수도가 공급되기 시작한 지난 1985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들어온 2007년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도시미관은 물론 청소년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군산시는 주변에 5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늘푸른 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어 공원이 조성될 경우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14천㎡중 중요시설 부지를 제외한 4천

㎡를 도서관을 찾는 청소년과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공원 조성은 부지 및 시설물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군산시에서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고 관리하기로 두 기관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난 10월부터 3억5천만원을 투입해 부지조성과 환경정비,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 11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휴식공원 개방후 관리를 위한 군산시의 준비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내달 20일까지 23일간 의정활동 시작

익산시의회(의장 조규재)는 28일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식을 갖고 오는 12월 20일까지 2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의와 일반안건처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편성안 1조3277억원(전년대비 11% 증가/일반회계 1조 1806억원, 특별회계 1471억원)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처리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17건을 심의·의결한다.

의원발의 안건은 7건으로 김경진

의원이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태일 의원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호 의원이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호·유재구·김경진·김충영·신동해·김연식·이순주·조남석 의원이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장경호 의원이 '익산시 보호관할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오인선 의원이 '익산시 대물림 맞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순주의원이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국립회

귀질환의료원 익산시 유치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회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립회귀질환의료원 설립에 관한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교통의 요충지이며 풍부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보유한 익산시에 국립회귀질환의료원 및 연구기관 유치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의결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총리,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등에 보내진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임형택 의원이 '하수처리장 감당화사업 계획변경의 문제점과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어린이 청소년의회 국회 견학

아동친화도시 군산시는 지난 27일 제4기 어린이·청소년 의원들과 멘토들 60여명이 대한민국 국회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이 참여한 주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을 돕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화합과 소통의 중요함을 배우기 위해 계획됐다.

국회 견학은 의회민주주의관, 국회의장관, 국회역사관 등이 포함돼있는 헌정기념관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지역국회의원인 김관영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입법정부의 사전 조직이었으며 입법부였던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한 국회의 방문 의미를 되새기고 정부 수립과 운영을 위한 헌법, 법률 제정의 중요성을 느끼는 기회를 마련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직접 국회를 방문하고 국회 역사를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참여 의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세미나와 정책 제안 대회 등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전국 최고 교육도시' 조성 박차

올해 교육예산 237억원 역대 최대 투입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 역대 최대인 237억원의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왔다. 분야별 교육지원 200억원과 정보화분야 25억원, 주민자치 7억 원 등이다.

다자녀 지원확대를 위해 우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장학금 혜택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실시

되고 있는 학교무상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고 교육소의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기초수업교실 등 학생건강생활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스마트한 교육정보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내버스 164대와 익산쌍릉, 가림문학관, 함라한옥체험단지 등을 포함해 9개 주요 관광지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농촌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 주민소

득 창출을 위해 망성 어랑마을과 여산 두여마을, 성당 두동편백마을 등 3곳에 정보화마을 운영을 지원하였다.

평생학습 중심도시 구현위해 국내 최초 종합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익산행복학교와 문해교육기관 등 19곳에서 35개반 42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익산신시대화 10강좌가 개설돼 연 4,600여명의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돼 세심한 곳까지 투입되면서 폭넓은 교육환경을 구축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특,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입법정부의 사전 조직이었으며 입법부였던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한 국회의 방문 의미를 되새기고 정부 수립과 운영을 위한 헌법, 법률 제정의 중요성을 느끼는 기회를 마련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직접 국회를 방문하고 국회 역사를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참여 의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세미나와 정책 제안 대회 등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홈페이지 www.jmaeil.com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10개소 점검

익산, 위반업체 폐쇄명령 3건, 사용중지명령 3건 등 행정조치

익산시가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대기·폐수·폐기물 배출시설 중 다수 민원 발생 사업장 1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익산시와 전북지역 방화경청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대기·폐수·폐기물배출시설에 대한 적정운영 여부 및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A업체 등 3개 사업장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하고, 대기배출시설을 미신고해 설치·운영한 B업체 등 3개 사업

장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건, 고발 6건, 과태료 처분 경고 7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2019년 제2회 추경에 28억80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지원금액을 31억500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에는 악취개선 보조금을 7억3000만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보조율도 50%에서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